

인간의 가슴이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잡은 손의 온기를 오랫동안 잊지 않는 일일 것이다.

겨울은 웃깃을 여미게 하고, 봄은 한걸음 덥석 손을 잡는다. 겨울과 봄 사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혼자 얼큰한 해물짬뽕을 먹으며 생각에 잠겨본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고, 카톡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언제라도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존재를 가지려고만 했지, 내가 먼저 상대를 위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니 자책감이 든다.

좋은 집에 좋은 가구에 명품을 지니고 있어도 마땅한 친구가 없다면 ‘거지’나 다름 없다. 아침이면 카톡을 주고받고, 낮에는 점심을 먹으며 산책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그래서 몸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같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누구라도 잘 살아온 사람이 분명하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그 계절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70대 중반을 넘어서니 주변에서 탄생보단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자식들로부터 다들 또래의 부고장만 받게 된다. 소원했던 일가친척과 한동안 못 보았던 친구들과 지우들을 만나는 자리가 고작 장례식장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富者)나 빈자(貧者)나 똑같은 모습으로 떠난다. 상가(喪家)에 가면 수행자(修行者)가 아니라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나름 ‘이사무애(理事無礙)’의 깨달음을 주고 있다. 즉 ‘깨달음의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풀어내는 일에도 걸림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싶다.

그 후 조계종 소속의 지우(知友)스님을 만났는데, 필자에게 ‘사를 닦은 마음이 천년의 보배’라며 ‘사욕(邪慾)’을 버리라고 한다. 그 법어(法語)에 무척 공감이 갔다. 이 유는 죽은 뒤에 내가 끝까지 가져가는 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빈 마음뿐이라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우 스님은 내게 말한다. “가쁜한 삶이 되라”고, “살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삶이 되면 죽음까지도 가볍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생사 해탈이 대단한 것이 아니며, 그게 바로 ‘생사해탈(生死解脫)’이

라고 했다.

귀한 그릇, 값비싼 옷은 왜 그렇게 아끼는 것일까? 어쩜 현재보다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도 즐기지 못한다.

옛말에 ‘석인성시(惜吝成屎)’이란 말이 있다. ‘아끼고 아끼다 땅 된다’는 뜻이다. “제일 값비싼 그릇(옷)은 언제 쓰실(입을) 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 둔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렴한 신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그릇 값싼 그릇만 사용한다.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 주는 ‘유품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쓰고, 안 좋은 것만 먹다 죽으면 우리 인생은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채 끝이 난다.

“물건이나 음식만 그럴까?” 아니다. 생각이나 말도 그렇다. 그렇다고 보니 생(生)의 마지막 과연 삶을 무엇일까? 흔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한다. 물론 인생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差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分明)한 것은 오직 하나뿐인 일회적(一回的)인생(人生)을 살다가 간다는 사실(事實)이다.

윤회(輪迴)의 이 소풍 길에, 우린, 어쩌다 이리 깊은 인연(因緣)이 되었을까. 널린 사랑 때문에 웃고, 가시처럼 주렁주렁 얼 키 미움 때문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아픔도 있었고, 많이 후회(後悔)도 했겠지만, 그래도, 그 소풍(消風)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정다운 인연(因緣)이 맺어졌겠는가.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사는 동안 최선(最善)을 다해 후회(後悔) 없는 삶을 살다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사람들은 봄바람을 “혜풍(惠風)”이라 했고, 여름 바람은 “훈풍(薰風)”이라 했고, 가을바람은 “금풍(金風)”이라 했고, 겨울바람은 “삭풍(朔風)”이라고 했다.

봄은 환희(歡喜)의 계절이다. 우울의 날이여 가거라, 비애의 날이여 사라져라, 절망의 날이여 없어져라! 고목처럼 메밀랐던 가지에 생명의 새싹이 돌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어붙었던 땅에서 녹색의 새 생명이 자란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을 왜 ‘NCO Club’이라고 부르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의 ‘학사(學士/Bachelors Degree)’ 학위에 왜 독신 남성이란 뜻의 ‘Bachelor’가 들어갈까?

장교용 독신자 숙소인 BOQ는 ‘Bachelor Officer Quarters’의 두문자(頭文字)다. 장교용 숙소 명칭의 ‘Bachelor’는 ‘미혼 독신 젊은 남성’이란 뜻이다.

상대적으로 부사관(副士官)과 병(兵)은 임관되지 않은 자, 즉 ‘Non Commissioned Officer’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부사관을 ‘NCO’로 호칭한다. ‘장교(將校) 임관(任官)’, ‘부사관(副士官)’ 임용(任用)’이란 단어도 가려서 써야 한다.

그런데 장교를 ‘Commissioned Officer’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서양에서 장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귀족이나 지주(地主)들에게 국왕이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장교는 국가수반으로부터 군대에 대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은 자이다. 군에서 장교는 명령을 하달(下達)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명령에 대해 책임지는 군인이다. 하지만 부사관 또는 사병에게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장교는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장교를 임관할 때 미합중국 대통령이 장교 임명장에 직접 서명(署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교 임관 사령장에 국방부 장관의 직인(職印)을 찍는다.

미국 정부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은 명예와 자부심이 대단하다. 미국의 많은 공직자 중에 장교와 직업 외교관 두 직종의 공직자가 임관할 때만 ‘Commissioned’라는 말이 붙기 때문이다.

장교와 직업 외교관의 공통점은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이다. 장교로 임관하는 것은 국가수호를 위한 막중한 권한을 나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며 이에 따른 막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그리고 군인들이 오른 손바닥을 펴서 우측 이마에 대는 거수경례(舉手敬禮)의 유래다.

첫째,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왕 앞에서 투구를 벗고 인사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기사들은 경기 전에 왕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투구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래야 왕은 그 기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었다. 거수경례의 관습이 왕 앞에서 기사를 식별하는 절차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로마 시대 말기, 암살이 자주 자행되던 시절이었기에 로마 시민은 군인을 만나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고 전한다.

셋째, 구식 소총을 사용하던 시절 군인들은 모자를 벗고 경례했다. 손에 화약이 까맣게 묻어 있어 경례할 때마다 모자가 더러워졌다. 그 대안으로 모자에 손을 살짝 갖다 대는 거수경례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군대문화는 지금도 <첫 번째 경례

(First Salute)> 전통이 살아 숨 쉬다.

장교로 임관된 이후 부사관에게 첫 번째 경례를 받는 의식이다. 나이가 많은 부사관이 갓 임관한 소위에게 정중하게 경례함으로써 장교에 대한 존중을 보이고 장교의 지시와 명령을 잘 따르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행사(Ceremony)다.

<사관과 신사>란 영화를 자세히 보면 신임 소위는 조교 부사관(Enlisted adviser)으로부터 첫 경례를 받고 나서 왼손으로 뭔가를 주는 장면이 나온다. 장교 임관 후 첫 번째 경례를 한 부사관에게 주는 1달러짜리 은화 선물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경례를 <Silver Salute>라고 한다.

이러한 유래는 1800년대 초 영국의 통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로 임관된 장교는 군대 업무가 숙달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조언해 주는 조교 부사관(Enlisted adviser)을 배정받았다.

부사관은 장교에게 부대의 역사에서부터 로프 매는 법 등 각종 군대 업무를 가르쳤다. 이때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자기 월급(당시 소위 월급 약 25달러)에서 1달러를 수고비로 주었다. 이후 이러한 제도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소위들은 첫 번째로 경례하는 부사관에게 1달러를 주는 전통이 살아 있다.

<올드 가드(Old Guard)>에 관한 이야기다. 미국 육군 제3보병연대는 워싱턴 D.C를 방위하며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키는 178cm 이상, 범죄 경력이 없고, 묘지 위치를 완벽히 암기해야 하며 복잡한 제식 또한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4가지 조건을 통해서 선별한다. 국가를 위해서 전시한 무명 참전용사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표하는 미합중국 정부의 특별 예우다.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비는 87년 전인 1937년 7월부터 육군 근위대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경계근무를 서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허리케인에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영하의 혹한이 닥쳐도 병사들의 근무는 계속된다. 이 군인들이 ‘올드 가드(Old Guard)’다. 여름에는 30분마다 겨울에는 1시간마다 교대식을 한다.

경비 시작 때 21초간 경례로 시작한다. 무명의 참전용사들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준하는 예우(禮遇)함을 뜻한다. 올드 가드가 허리에 차는 권총(M-17 한정판)에는 <침묵, 존경, 인내, 존엄>이란 글자가 아로새겨져 있음도 밝힌다.

끝으로 우리나라로 미국처럼 제복(制服)을 입는 장교와 부사관, 사병 등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감사와 성원을 보내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제복을 입는 군인에게 최고 품질의 1등급 식재료(쌀, 고기, 과일 등)를 최우선 공급한다. 그런 다음에 국민이 식재료로 사용한다. 우리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복 입는 군인, 경찰, 소방관에게 제대로 예우하는 게 선진국(先進國) 조건이다//

목도리

김완용 (예준위, 준사관 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군복을 깊어지는 계절이 되면 불현듯이 어머니의 검정 목도리가 생각난다.

일제 강점기 말 어머니는 30대 젊은 나이로 장사를 시작했다. 고향을 떠나 타관에

장교(將校), 부사관(副士官), 경례(敬禮)

전대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세계 각국의 군대(軍隊)는 계급사회(階級社會)로 조직된다.

장교(將校/Officer)는 부사관(副士官/Non commissioned officer)과 병사(兵士/Soldier, Enlisted man)를 지휘하는 계급이다.

대한민국 장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일반 대학교 졸업자를 중에서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 후 소위(少尉) 계급의 관직에 임명된다. 이를 장교 임관(將校任官)이라 한다.

장교도 아니고 부사관, 병사도 아닌 ‘노

란색 Diamond’ 계급장을 달는 ‘준위(Warrant Officer)’ 계급도 있다. 장교 집합에도 빠지고 부사관, 사병 집합에도 빠지는 계급이다.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장교 합동 임관>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장교는 임관할 때 엄숙하게 선서한다.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장교를 ‘Officer’라고 부른다. 장교를 표현할 때는 ‘(국가로부터) 위임(委任)받은’이란 뜻의 ‘Commissioned’를 붙여서 ‘Commissioned Officer’라고 부른다.

군복무를 병역 의무를 마치고도 장교 숙소를 왜 ‘BOQ’라고 부르는지, 부사관 클럽



서 살면서 찢어지는 가난을 이기지 못해 처음 시작한 장사가 떡장수였다. 떡이라 고 해봐야 예쁘게 빛은 반달 송편이나 무지개떡이 아니라

두툼하고 투박한 인절미를 만들어 후하게 팔았다. 밤잠을 설치며 찹쌀을 짜고 뭉쳐 만든 떡을 이고 전주 나들목 건지산 공동묘지 여우들 틈새를 지나 시오리길 시내에 들어서면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이 되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자기가 경작한 곡식이라도 마음대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는 일제 강점기 시대라 떡 장사를 하다 일본 순사들에게 들기면 압수당하여 현장에서 모조리 경매를 당하고, 유치장에 갇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시절이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쓴 장사였으나 너무 배고픈 시절이라 먼동이 익는 골목 어귀에 떡보따리를 풀려 놓고 앉으면 순식간에 떡은 팔려 나갔다고 했다. 매일 돈을 벌어 땅을 사들이는 재미로 어머니는 돈이 될 만한 장사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했다. 새우젓, 유기, 방물 등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집과 시장과 이웃 마을을 돌며 장사를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시집을 때 두메산골에 살던 노총각이었고, 조선 말기 사회를 맞은 가문으로 많은 식구가 먹고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5남매의 막내로 무능한 남편이었고, 돈 몇 푼이 생기면 투전판으로 달려가는 노름꾼이었다고 했다. 그런 아버지마저 내가 태어난 지 1달 20일 만에 복막염으로 돌아가시고, 더욱 의지할 데가 없는 어머니는 30대 청춘과 부로 밤낮없이 장사와 농사를 하며 슬하의 5남매를 기르셨다.

그러한 어머니는 늦가을부터 봄이 오기 까지 검정 목도리를 목에 감고 다니셨다. 목도리는 한파를 막아주기도 했지만, 5남매 허어미 된 설움의 눈물도 닦아 주었다. 요즈음 젊은 여성들은 멋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실크제품의 부드러운 면풀러를 목에

두르고 다니지만, 어릴 적 내가 본 어머니의 목도리는 무명실타래를 드성듬성 엮어 때를 타지 말라고 검정 물감으로 염색을 한 목도리였다.

어머니의 짧은 목에 걸린 검정 목도리는 겨우내 떨어지지 않고 추위를 막고 있었지만, 추위가 풀리는 이른 봄날에는 답답해 보였다. 어린 마음에 검정 목도리를 하고 다니시던 어머니가 친구들에게는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봄에는 바람이 더 속으로 파고들어 춥다고 하시며 목도리를 항상 감고 계셨다.

그 어머니의 분신 같았던 검정 목도리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몇 년인가고 향집에 남아 있었다. 옛 추억이 살아 있다는 것은 행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한파가 몰려드는 겨울 등굣길에 어머니는 자기의 애장품 검정 목도리를 내 목에 감싸 주셨다. 나는 창피하다며 벗어 던졌고, 어머니는 끝내 내 목에 걸쳐주셨다. 지금은 후회의 칼날을 갈 듯, 그 시절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 표현을 몰라준 것에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의 분신 같은 검정 목도리가 등굣길 내 목을 벗어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도 어머니는 시장 어귀 노상에서 장사하시면서 겨울이면 검정 목도리를 하고 계셨다.

많은 고난의 시간을 접으시며 시장바닥 노상에서 일본강점기 시절 떡 장사 하듯 늙어서 까지 마늘을 까서 파시던 어머니는 86 세의 나이로 세상을 훌훌히 떠나셨다.

어머니가 이승을 떠나시고 혼자 기거하시던 집을 정리하면서 수십 년 세월 늦가을부터 봄까지 어머님 목을 감싸고 있던 검정 목도리를 옷장 안에서 헌 옷들과 함께 발견하였다. 어머니의 분신 같은 목도리다. 이제 저승길에 혼자 가시면서 더욱 추우실 어머님을 생각하며 헌 옷가지와 함께 태워 보냈다//

받아 1954년 4월 3일에 명명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호는 실전에 투입되거나 양산되지 않았고 그대로 공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1960년 10월 대구에 있던 한국항공학교라는 개인 비행학교에 넘겨집니다.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부활호는 설계자였던 故 이원복 선생님(현지임관, 대령 예편)의 인터뷰가 신문지면에 실린 것을 계기로 2004년에 경상공업고등학교 지하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제 81항공정비창에 의해 복원작업이 실시되어 2004년 10월 22일에 복원기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공군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011년 경상남도와 사천시에 의해 별도로 개량 복원기가 2대 만들어져서 1대는 현재 사천시청에 전시되어 있고 다른 1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빌려와 흥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활호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초 국산 경비행기 부활호”에서 보실 수 있으며 이 책은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부활호의 역사와 기술적인 측면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공군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이 공군 4대 핵심 가치(도전, 혁신, 전문성, 팀워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행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보다도 이 비행기가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개발 당시에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자체적인 항공기 연구개발이나, 그 성과물의 보존 및 선양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호가 소홀히 관리되고 군에서 민간으로 넘겨지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그 성과물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한편으로는 부활호의 개발 전후 상황에서부터 우리나라 공군 발전을 거론함에 있어 뗄 수 없는 항공우주공학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발전해 나갔는지를 엿볼 수도 있다는 점도 짚을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

면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호가 당시 다른 공군의 L형 항공기에 비해 갖는 기술적인 특색들(특유의 동체 형상과 투하창, 꼬리바퀴의 위치, 슬롯 플랩의 적용과 주날개 날개꼴 등)은 마치 당시 공군의 L형 항공기 운용상황에 딱 맞춘 듯한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새로 만들 때 누구보다도 이를 사용할 우리 자신의 요구사항에 맞는 실용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활호라는 비행기를 알기 위해서 아직 우리는 길 길이 멍니다. 부활호의 정확한 개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문서자료는 아직 거의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호가 정확히 어떤 계기로 개발되기 시작했는지, 개발 일정은 어떻게 되었고 개발 도중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개발 이후 부활호가 어떻게 보존 및 관리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민간으로 이관되었는지 대해서도 거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의미를 담아 부활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인지, 당시 공군 지휘관 참모들은 부활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비슷한 시기 해군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항공기 개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단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자료가 꼭 발견되어서 아직 비어있는 부분이 많은 부활호의 역사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이 역사적 비극이었던 6·25 전쟁 와중에서도 자체적인 항공기 개발의 꿈을 꾸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활호의 진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공군인들의 역할이 절실히 합니다. 항공우주 과학기술 창달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우리 공군인들이 부활호라는 비행기와 그 역사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큰 기념행사와 같은 것은 없더라도 공군인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공우주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

1007호 부활 개발과 명명 70주년, 복원 20주년을 맞으며

이동건(예 병장, 병 673기, 에어로솔루션코리아)



존경하는 공군전 우회 회원 여러분! 지난 2023년은 우리 공군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7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군기술학교가 대한민국 최초로 자체개발한 동력항공기인 ‘1007호 부활’(이른바 부활호)을 개발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 역사적인 비행기가 대통령으로부터 부활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지 70년째가 되는 해이고 더불어 그 동안 경상공업고등학교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부활호 원형기의 기골이 발굴 및 복원된 지 2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발 70주년이었던 작년 공군 내에서 부활호에 대한 특별한 기념이나 선양이 있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은 ADEX 2023과 함께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비행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연구개발역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활호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부족하나마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활호는 1953년 여름 무렵부터 現 군수학교의 전신인 기술학교가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발 당시의 명칭은 ‘국산기 신형 비행기’로서, 당시 우리 공군이 운용하던 연락기(L형 항공기)와 같은 체급의 비행기였습니다. 이는 항공기술병력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교관 및 조교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학교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1953년 10월 10일 수 개월만에 기체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공군 최초로 공대공 피격으로 전사한 L형 항공기 조종사 故 천봉식 대위의 성씨와 행운의 숫자 7에서 따와 ‘1007호’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듬해인 1954년 개발에 참여한 사병들은 은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활이라는 친필휘호를 하사

연꽃밭에

이윤우(예 소령, 공사 6기)



순결의 천사같은

연꽃잎

스치는 바람에

향기 날리고

늠름한 군자같은

연꽃잎

마주한 얼굴에

미소 보내고

정겨운 두 마리 잉어

빙글빙글

사랑 싸움

평화로운 연꽃밭에

향기

미소

사랑이 넘치네//





박영민 교수의 원포인트 레슨

박 영 민
(예 중위, 학사53기, 고려대 명예교수)

코킹을 제대로 해야한다.

백스윙 텁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지면을 직각으로 가리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팔꿈치가 겨드랑이에서 떨어지는 골퍼들은 대체로 오른쪽 어깨와 팔·손에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버릇이 있는 골퍼들은 백스윙을 시작해서 양손이 허리높이에 왔을 때 손목을 꺾어주면, 이른바 코킹을 해주면 간단히 고칠 수 있게 된다. 즉, 오른쪽 팔이 겨드랑이에 가깝게 붙은 상태로 텁 자세가 만들어 진다. 손목의 코킹을 제때에 하게 되면 오버 스윙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오버스윙도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슴을 돌려라

백스윙의 텁 자세를 가장 쉽고 정확히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골퍼들이 스윙을 할때마다 고심하고 안타까워하는 사항일 것이다. 또한 골프 교육자들마다 나름대로의 비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요령이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한 것 들이라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요령이 못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매코드가 주장하고 있는 요령은 체격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요령이라서 한번쯤 시도해 볼 것을 자신있게 권고해 본다. 즉 백스윙이 텁에서 자신의 가슴이 목표의 정반대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양 어깨의 회전도 충분해지고 잔등도 목표쪽을 직각으로 향하게 되어 자연히 정확한 백스윙의 텁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양파의 영양과 효능



양파의 효능은 수십 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많다.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릴 정도이며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 양파즙을 먹었다고 할 정도다. 여담으로 중국인이 양파를 많이 먹어 기름진 음식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의 발병이 낮다는 설이 있는데, 양파는 현지 중국 요리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잡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양파는 혈관에 있는 기름,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황화 아릴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알리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져 위장기능을 좋게 한다. 그리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같은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있으며, 피로 해소에도 좋은 강장식품이다. 고대 이집트에선 인부들에게 양파와 마늘 공급이 끊기면 난리가 나서 파업사유가 됐을 정도였다고 한다.

양파에 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식도, 간, 대장, 위의 암발생을 억제하며, ‘케르세틴’ 성분 역시 인체 내 밀암물질 전이를 막아주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미 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출간한 출판물에서는 케르세틴의 암 예방 효과가 없

다고 소개하였다.

성욕증진과 정력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케르세틴(quercetin)과 폐쿠친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미 FDA에서는 이 효능의 표시를 금지시킨다. 이외에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양파에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도 정력에 좋다고 한다. 프랑스에선 신혼 부부가 호텔에 숙박하면 아침 식사 메뉴에 양파 수프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에게 양파 수프를 자주 끓여주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껍질 쪽에 영양소가 많이 들었는데 특히 케르세틴은 속보다 60배나 들었다. 양파 껍질이란 결국 양파의 바깥쪽 알맹이 한두 겹이 건조돼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피 대비 영양소가 많다. 다만 먹기엔 아무래도 불편하니 껍질만 따로 씻어서 말려 차로 끓여 먹으면 좋은데, 양파 향이 많이 나긴 하지만 특유의 양파 매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육수를 낼 때 껍질을 넣기도 한다. 또한 지방분해 효과도 있어서 다이어트식품으로도 각광 받는다.

케르세틴의 일일 권장 복용량은 150-1000mg인데 양파 100g당 28-51mg정도 함유 하였다. 본격적으로 임상실험을 하기에 앞서 시행된 예비실험에선 석 달간 1000mg가량 구강으로 섭취했음에도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 임신 중인 산모나 모유 수유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니 신중히 섭취하자.

봄철 나른함을 이기는 면역력 증강법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면역력 증강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유행하였던 항독 소 요법을 비롯하여, 독소 제거 다이어트, 여러 면역 증강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이 정말 면역력을 증강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면역력이 과연 뭘까?

뭐길래, 세상 속에서 회자되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일까? 굳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던 진시황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불로장생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자 꿈이다. 의학적으로 면역력은 생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항원을 이겨내는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면역력의 증강은 근본적으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각에서 면역력의 증강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신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새싹이 명을 드러내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 우리는 화창한 봄 햇살을 맑으며 웃즈렸던 몸을 서서히 드러내면 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한다. 겨우내 미뤄놓았던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연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건강한 식습관

무엇보다 봄철 갑작스런 기온의 증가는 사람을 노곤하게 만들고, 늦잠을 자게 만든다. 이러한 나날에 바쁜 일상까지 겹치면, 아침 거르기 일수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과 설탕, 소금과 같은 감미료를 줄여보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따뜻한 봄을 맞아, 간단한 지중해식(Mediterranean Diet) 아침 식사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중해식이라고 해서 별 것은 아니다. 설탕 없는 다소 무미건조한 빵에 약간의 올리브유, 견과류, 신선한 우유 정도이다. 여기에 싱싱한 생선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설탕이 많은 샌드위치 않고, 버터나 마요네즈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신선한 아침과 건강한 신체, 몸과 마음의 여유도 덤으로 찾아온다.

적절한 운동

운동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건강 요소이다. 특히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현대인에게 근력 강화 운동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유산소운동이 심폐지 구력을 강화시키지만, 근력 강화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향진시키고, 근력 강화를 통한 순발력, 조절 능력의 강화를 두루 강조하고 있으므로, 근력 강화 운동은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2~3일 정도를 권고된다. 특히나 근력이 약해지는 노인 인구에서 근력 강화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8 미국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150분의 운동은 피로함을 날리고, 신체의 기본기능을 유지하는 최소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정도를 근력 강화 운동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체중감량, 체형 관리 등을 위해서는 1주일 300분, 즉, 하루 1시간씩 최소 5일의 운동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최소한 조깅 이상의 강도로 해야 하며, 1회 1시간 중 30분은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 단지 지나치게 바쁜 일상으로 과로하고 있다면 운동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면역력이 증강되기는커녕 감기, 몸살, 대상포진에 서 자유롭기 어려워서이다.

혹여,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여, 항산화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활성산소에 대한 분해능력도 좋아지므로 그런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직업 전문 운동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활성산소 걱정은 할 이유가 없다. 한 가지 더 팁을 제시하면, 최근에는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단시간에 강도를 높인 여유 가지 운동들이 소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1시간을 열심히 걷는 것보다, 20분간 조깅을 하는 것이 운동의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능력만 충분하다면 오늘부터 20분간 조깅을 시작해 피로를 날려 보자.// 출처(국민건강지식센터 건강칼럼)



회원가입 안내

■ 공군전우회

△ 회원자격

공군에서 전역한 전 장교,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신 모든 공군예비역분을 모십니다.

△ 회원가입 절차

- 공군 현지부대에서 전역하는 장병/군무원들은 부대 인사 참모를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미 전역하신 분은 본회(중앙회) 또는 전국지회를 통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공군전우회 홈페이지 (www.airforce.ne.kr)를 통하여 가입하셔도 됩니다.

△ 회원구분

구분	자격	회비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비 납부자	20만원(1회)
준회원	홈페이지 가입자(회비미납자)	

· 입금안내

- 우리은행 319-260099-01-001 / 공군전우회
- 국민은행 485501-01-108707 / 공군전우회
- 지로입금 / 지로번호 : 6306588

본회 지로용지를 동봉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는 지로용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 본회의 정기 회지(보라매)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선별적 참가
- 재경지역 평생회원/연회원(해당년도 회비납입) 가입자 부모, 본인, 처 사망시 근조기 지원
- 10년미만 복무자 공군체력단련장 이용시 준회원 대우
- 특별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함.

△ 신분별/직능별단체

단체명	회장	사무(총)국장
공군항과고총동창회	김진홍 010-5187-3625	방정원 010-8618-4558
공군2사종동문회	김장회 010-5463-1786	김종현 010-4801-7034
공군ROTC장교회	김석찬 010-6233-7231	이상복 010-9382-1084
조종간부회	이옥희 010-4526-9856	최종환 010-6212-6644
항성회(준사관)	-	장군 010-5073-9424
원우회(부사관)	차주성 010-3548-2893	정수일 010-5096-6150
군무원회	정화일 010-8753-6357	이원 010-4273-7005
인터넷전우회(로카피스)	이중근	이병권 010-5071-4763
공군통역장교회	심건 010-9175-3886	김장환 010-4117-7158
유치곤장군보존회	김영오 010-8592-8804	-
순직조종사부인회	송우영 010-9020-8358	박종희 010-4021-3616

지회	회장	사무국장
광주시지부	손정문 010-3601-3899	김승식 010-3603-0724
대구시지부	남상석 010-3080-6432	정규채 010-8206-7712
대전시지부	김호중 010-5409-6881	신두철 010-3141-2207
부산시지부	김선호 010-3590-2852	김경태 010-5071-2286
인천시지부	최용주 010-9855-2930	윤양로 010-7749-7668
제주도지부	강영환 010-3939-9000	김상현 010-9687-4312
강릉시지회	황용기 010-8277-5402	김광종 010-5061-8541
경주시지회	김영준 010-4524-3201	유시현 010-6511-0006
군산시지회	박종채 010-3063-3390	장도규 010-5687-9924
군위군지회	은현기 010-9460-1068	박세업 010-5438-7273
김해시지회	임현상 010-3765-9792	제해언 010-4560-0622
동두천지회	김정수 010-5036-5133	김인국 010-8722-5831
문경시지회	한상식 010-5769-4355	김동성 010-9795-4210
사천시지회	박갑용 010-9676-1907	문상경 010-6579-0220
서산시지회	홍만진 010-6422-9440	도임구 010-5081-7799
성남시지회	박문석 010-3768-1234	안제성 010-3631-0120
수원시지회	송요정 010-3319-3744	이혁재 010-4678-4065
속초시지회	권영화 010-3722-1777	김창혁 010-4314-0891
아산시지회	정순웅 010-5422-6945	이석종 010-8505-9802
영월시지회	장호근 010-5363-0748	이종구 010-8901-4827

양평군지회	김수영 010-2771-2772	김재학 010-3011-9693
영주시지회	허기영 010-3840-8381	석두환 010-9076-9002
이천시지회	한상숙 010-3485-9678	김기창 010-4760-8217
의산시지회	최병훈 010-2686-6111	차경수
예천군지회	양찬모 010-9191-8949	조원희 010-3548-0584
의왕시지회	이석우 010-5245-4639	이병래 010-8721-2984
원주시지회	김구식 010-4937-5110	이상인 010-5071-5151
전주시지회	오정수 010-5641-3496	윤한호 010-3676-9523
진주시지회	오기호 010-2207-9017	강석동 010-3872-4292
창원시지회	이성배 010-3566-6123	조진형 010-4879-9089
청주시지회	이균신 010-3576-9626	한일민 010-7774-3191
충남서부지회	조봉환 010-2253-7113	이선백 010-3029-3523
충주시지회	조동주 010-8441-1200	효웅기 010-5078-7656
칠곡군지회	이진권 010-3503-0321	장병찬 010-8584-7070
철원군지회	구한서 010-6372-9332	임연재 010-5352-5381
포천시지회	신건영 010-5365-5647	하명균 010-8830-3816
평택시지회	왕관현 010-5256-0188	이중혁 010-2363-3621
화천시지회	김철준 010-6276-9889	이영수 010-8891-1393

△ 해외지회

지역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미국 조지아	백남오	770-622-9227	
미국 덴마	김봉회	303-750-7476	
미국 샌디에고	이세중	760-845-1287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김영본	919-946-6614	af66809@hotmail.com
미국 시카고	이근효	847-439-1168	
미국 뉴욕	임재빈	201-233-6622	
미국 워싱턴	한수웅	301-806-2976	suhan317@yahoo.com
미국 L A	심인태	213-700-2566	intaishim@hanmail.net
미국 필라델피아	서장석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두용	510-745-7874	
미국 하와이	장재혁	808-947-7582	9477582@gmail.com
캐나다 동부	위정남	647-802-9981	
캐나다 서부	홍창의	604-463-4129	
브라질 상파울로	박승문	5511-222-9325	
아르헨티나	전영표	11-4632-8139	
호주 시드니	윤석효	0417-049-722	

■ 공군발전협회

△ 회원자격 : 기관, 단체, 기업체 및 대한민국 국민(성인)

△ 회원구분

구분	자격	회비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원	평생회비 납부자	30만원(1회)
후원회원	후원금 납부자	제한없음
단체회원	기관, 단체, 기업체	약정금액
명예회원	이사회에서 위촉한 자	없음
일반회원	단체회원의 구성원	없음

△ 가입절차

- 공군발전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 '회원가입' 클릭 후, 안내화면에 따라 가입
- 공군발전협회 소정 양식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또는 FAX 발송

△ 회비납부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6-301-276447 (예금주/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 국민은행 485501-01-339123(예금주/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 회원혜택

- 본회의 정기회지(신문/책자)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선별적 참가)

■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태성관2층) 06944
- Tel(02)825-8461~2, 811-1412 / Fax(02)825-8460 (군)923-7590, 923-7541
- E-mail / kafva-airforce@naver.com